미8군 본사 공보실 발행 한글판
비관변 미국방성 공인 격주간지

카투사 격주간

1976년 6월 1일 창간 THE KATUSA, A BI-WEEKLY PUBLICATION 2004년 10월 첫 번째 29권 17호

이번 호에는...

2면 군관련 소식
풍요로운한가위

3면 군관련 소식
미8군 대통령 표창 수상
한마디

4, 5면 부대 탐방
카투사교육대

6면 영어교육 연재
Winglish.com

7면 카투사 기고문
동북공정과중화주의

8면 안녕하세요
신은성

부대 탐방 후보지 신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찾습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 한달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12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부대탐방은 7명이상의 카투사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대를 다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제 56 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지난 1일 계룡대에서는 건군 56 주년을 기념하는 국군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다.

1950년 10월 1일은 우리 국군이 남침한 북한 공산군을 반격한 끝에 38선을 돌파한 날로 그 의의를 살리기 위하여 국군의 날로 지정되었다. 국군은 최근 서부사하라, 동티모르 등에서 국제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함은 물론, 아프간과 이라크에 파병하여 평화정착과 재건지원 활동을 펼쳐 국위를 선양하는 등 세계속의 한국군으로 발전해 왔다. 올해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함께하는 국방, 튼튼한 국방'을 행사 주제로 하여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국군의 위용을 보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식전행사는 '국군의 역사행진'이라는 주제로 과거 광복군, 국방경비대부터 현재의 자이툰 부대까지 각 시대마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 국군의 모습을 선보였다. 정확하고 절도 있는 의장대 시범과 취타대 행진은 행사에 참석한 많은 이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기념식에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탄생한 국군은 6.25 전쟁시 조국을 수호한 이래 북한의 각종 대남도발과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해 왔다. 또 각종 재해, 재난시 적극적인 구조 및 지원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왔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윤장관은 "이 행사가 우리 군이 국민으로부터 더 큰 사랑과 신뢰를 받고, 사기가 충천되어 선진화, 현대화된 국군으로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pc. Daniel Love/ Eighth Army PAO

국군의 날 기념식을 위해 사열해 있는 국군 장병들.

기념식은 기념사 후 행사에 참여한 전 병력이 퇴장함에 따라 막을 내렸다. 식후 행사는 화려한 공연의 연속이었다. 특전사들의 고공강하와 특전무술은 국군의 전투력을 과시하기에 충분했고, 축하비행 공연은 맑은 가을 하늘을 장식했다.

한편 국방부는 국군의 날 기념식 이외에도 계룡축제의 일환으로 2일부터 이틀간 모두가 함께한 행진, 특별공연, 전국 마라톤 대회, 병영체험, 군 사진 공모전, 전투게임, 군복패션, 국군홍보관 등 다채롭고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군인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

일병 김도호

36 통신대대 한국군 통신부대 방문

제공사진

무열 박물관을 견학하고 있는 36통신대대의 간부들.

9월 24일, 36통신대대의 소위, 중위급 간부들은 36 통신대대장 미셸 볼린져 중령과 작전과 토레스 소령, 라이스 대위 등의 통솔 하에 한국군 2군사령부에 위치한 62통신대대의 통신시설을 견학하였다.

아침 9시경에 2군사령부에 도착한 36통신대대 측 일행은 당일 자매결연을 한 62통신대대 측 간부의 안내를 따라 2군사령부의 통신시설로 직행하였다. 본격적인 견학에 앞서, 36 통신대대 일행은 이 시설이 남부의 광대한 지역과 연합사와의 통신을 담당한다는 설명을 받고 상당한 기대감을 품었다. 일행은 견학을 하면서 미군 측 장비와는 다른 한국군 측 장비에 호기심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미군의 것과 같거나 비슷한 원리로 사용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반가움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대대장인 볼린져 중령은 안내가 무색할 정도로 각 장비를 앞에 두고 휘하 장교들에게 각자 맡은 부서에 따라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다양한 설명을 하여 지휘관으로서의 탁월함과 책임감을 보여주었다. 36 통신대대 일행은 통신장비들에 제공된 충분한 공간과 이 공간에 효율적으로 장비들을 설치한 공간배치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통신시설의 견학에 이어서 일행은 곧바로 2 군사령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무열박물관을 방문하였다. 이곳에서 일행은 2 군사령부의 역사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역할, 휘하에 거느리고 있는 부대들에 대한 소개를 포함하는 브리핑을 높은 관심을 가지고 받았다. 특히 과

2 면으로 계속...

우리 민족의 풍요로운 한가위

지난 9월 28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전 국민이 26일부터 29일까지 긴 연휴를 보냈다. 한가위, 가위, 중추절이라고도 불리우는 추석은 음력으로는 8월 15일이며, 그 기원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설들이 있다. 첫번째 설은, 신라 유리왕이 두 왕녀를 중심으로 나라안 귀족층 부녀자들을 두 편으로 갈라 음력 7월 16일부터 한달동안 베를 짜게 하고, 마지막 8월 15일에 승부의 판정이 나면 진 편에서 이긴 편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회소곡(會蘇曲)을 부르며 밤새도록 노래와 춤을 즐겼는데 이날이 추석의 기원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 외에 산둥(山東)지방에 사는 신라인들이 신라가 발해와 싸워 이긴 날인 8월 15일을 명절로 삼아 온갖 음식을 만들어 먹고 가무를 즐겼다고 하여 추석의 기원이 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이 두가지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들이다. 그 유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석은 오랜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추석은 1년 중 가장 큰 만월을 맞이하는 명절이기도 하며, 예전 농경민족이였던 우리민족에게 가장 기쁘고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에 풍년을 축하하고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며 이웃끼리 인심을 나누고 놀이를 즐기는 명절로서, 예전부터 민간에서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명절로 여겼다.

비록 지속적인 불경기와 실업 문제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어 고향에 내려가기 조차 부담스럽다는 사람들이 많던 이번 추석이었지만, 역시 명절이 좋은 것은 신분이나 남녀노소를 떠나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카투사 신문 최의진

지난 9월 28일 서울 경복궁에서 부모님과 나들이 온 한 어린아이가 투호를 즐기고 있다.

지긋지긋한 업무와 일상을 떠나 집에서 한가롭게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직장인들, 잠시나마 학교공부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학생들, 오랜만에 고향에 찾아온 아들, 딸들을 보며 좋아하셨을 우리의 부모님들, 바빴던 일상 때문에 그간 찾아뵙지 못한 고마운 분들을 찾아 인사를 드릴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추석은 마음으로나마 풍요롭고 따뜻한 명절이였던 것이 틀림없다. 또 한해의 반이상을 보내고 맞이하는 긴 연휴이기에 그 간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저속 도로'라고도 불리어질 만큼 답답하기만 한 추석 연휴의 귀성, 귀경길을 뻔히 알면서도 찾아가는 사람들, 추석에만 뜨는 것도 아닌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추석같이 큰 명절에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다. 별로 색다를것 없는 추석특집 방송들, 매해 재방송을 해 주는 여러 외화를 가족들이 함께 한다는 재미에 단란히 보고 있는 것 또한 추석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장면일 것이다. 오랜만에 옷장의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성묘를 하러가거나 고궁을 찾아가는 것도 이런 명절이 아니면 기분이 나지 않을 것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옛말의 그 한가위가 이제 지나갔다. 온 국민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재충전의 기회로, 또는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았을 연휴가 끝나고 모두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연휴 후유증을 극복하고, 모두 추석날 밤 보름달을 보며 빌었던 소원들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이다. ■

이병 최의진

카투사 신문 최의진

흥례문앞 광장에서 조선시대 수문장 교대 의식을 재현하는 행사를 하고있다.

36 통신대대

1면에 이어서...

거에 북한 공비들의 침투작전을 격퇴한 사례들, 한국전쟁 때 사용하던 한국군 장비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군의 장비,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 전선에서 치러졌던 유명한 다부동 전투에 대해서 일행은 보다 더 큰 관심을 보이며 많은 질문을 하였다. 박물관 견학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였다.

36통신대대 일행은 모든 일정에 대하여 매우 만족한 모습을 보였다. 볼린저 중령은 "우리 36통신대대에게 이런 귀중한 기회를 제공하여 준 62통신대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견학을 통하여 우리 부대의 장교들은 자신이 맡은 업무와 장비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고, 우리의 동맹군인 한국군, 특히 우리와 같은 지역을 지키는 한국군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통역으로 일행과 일정에 따라 나섰던 36통신대대 본부중대 백수현 상병도 "흥미롭고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미군 측에 우리 한국군의 우수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어서 자랑스러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유익한 교류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

36통신대대 본부중대 상병 서진태

카투사 신문은 미 육군 규정 360-1에 의해 미8군 사령부 공보실에서 발행되는 한글판 비관변 미국방성 공인 신문으로, 1회 4,000부씩 월 2회 발행되고 있다. 이 신문은 전국의 미 육군 배속 한국군과 주한미군 요원들에게 배부되며 여기에 게재된 견해와 의견은 미국 정부, 국방성, 육군성, 미8군이나 대한민국 육군의 그것은 아니다. 카투사 신문은 격주간지로서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발행된다. 사무실은 용산 미8군 부대내 C-2330B 이며 전화번호는 723-6460/3134/4681이다. 모든 글은 용산구 체신청 직영 우체국 사서함 59호 미8군 본부중대 공보실로 보내면 된다. 전자우편 주소는 kimtaek@usfk.korea.army.mil이다.

미8군 사령관
중장 찰스 씨 캠벨
한국군지원단장
대령 김덕곤
미8군 공보실장
중령 토마스 이 버지나
한국군지원단 정훈과장
대위 이세희
편집장
상병 김택현
기자
상병 염태성
일병 신희석
일병 김도호
이병 최의진

Eighth U.S. Army Commander
Lt. Gen. Charles C. Campbell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r
Lt. Col. Thomas E. Budzyna
Command Information OIC
Capt. Kone C. Faulkner
Editor
Cpl. Kim, Taek-hyun
Staff Writers
Cpl. Yum, Tae-sung
Pfc. Shin, Hee-suk
Pfc. Kim, Do-ho
PV2 Choi, Eui-jin
Special Assistant
Mr. In, Pu-hyun

KATUSA is an unofficial publication authorized by AR 360-1. Editorial content is prepared, edited and provided by the Eighth U. S. Army Public Affairs Office, APO AP 96205-0010. Contents of KATUSA are not necessarily the official views of, or endorsed by, the U.S.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ce, Department of the Army, Eighth U.S. Army, or Republic of Korea Army. KATUSA is an offset publication, printed twice monthly by the Document Automation and Production Service. 4,000 copies are distributed on the 1st and 3rd week of each month. Editorial staff is located in Bldg. C-2330B, Yongsan Garrison, Seoul, Korea. Office telephone numbers are 723-6460/3134/4681. Items submitted for publications consideration should be sent to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Command Information Division, ATTN: KATUSA NEWS, APO AP 96205-0010. Or use our email address: kimtaek@usfk.korea.army.mil. We reserve the right to edit items for brevity, clarity, and news style. Letters to the editor are accepted but must be signed. Names will be withheld by request.

카투사 신문은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카투사 신문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 내의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해 알려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관련 소식 외에도, 전국의 모든 카투사들과 공유하고 싶은 멋진 추억이나 아름다운 이야기, 전하고 싶은 글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전화: DSN 723-6460
E-mail: kimtaek@usfk.korea.army.mil

주한 미8군, 노무현 대통령 표창장 수상

지난 1일 계룡대에서는 건군 제56주년을 기념하는 국군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 날 많은 장관들과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주한 미8군 사령관 찰스 캠벨 중장은 미8군을 대표하여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표창장을 수상하였다. 다음은 표창장의 내용이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미8군이 지난 50년동안 대한민국에 이바지한 값진 공헌에 대하여 이 표창장을 수여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50년간 미8군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우수한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미8군의 비전투인원 대피 작전과 대한민국 군에 대한 전투력 지원은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을 사전에 억제했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유지하는데 확고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사례를 들자면, 미8군은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FOTA)와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8군은 비무장지대(DMZ) 지역의 공동경비구역(JSA)에서의 안보작전을 포함한 7개의 작전들이 미8군에서 대한민국 국군에 인도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미8군은 또 연합토지관리계획을 이행하여 미국과 대한민국이 전쟁억제 능력을 유지하면서 미8군의 병력을 더 적은 시설에 통합, 정리하는 것을 실행했습니다.

미8군은 주한미군의 '좋은 이웃' 계획의 일환으로 한국 전역의 학교와 자선단체들에 1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 왔고, 병사들은 100만 시간 이상의 오랜기간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한국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한국의 여러 단체들과 기관들, 그리고 한국군과의 이해관계 및 상호작용관계, 그리고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증진시켰음은 물론입니다. 그러한 뛰어난 노력들 중에는 한미단체 친선행사, 학교방문 봉사활동, 한국군과의 부대 친선행사, 그리고 우수한 수행 능력과 지도력을 지닌 카투사들에게 백선엽 장군상을 수상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미8군의 불굴의 헌신과 희생정신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를 보다 돈독하게 하는데 큰 기여를 했으며 한국인들로부터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2004년 10월 1일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카투사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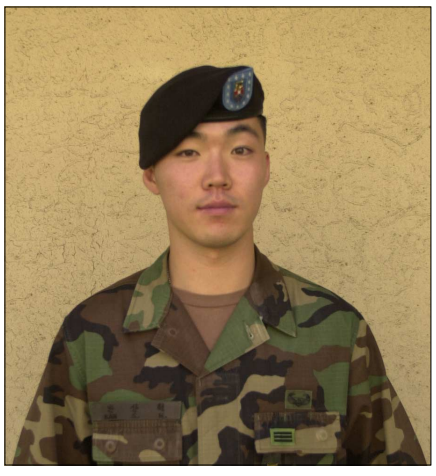
기억에 남는 교육병

카투사교육대 1구대 교관
병장 조형만

모든 교육병들이 다 기억에 남지만, 특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졌던 어떤 기수가 생각납니다. 그 기수는 항상 모범을 보이면서 여기 교육생활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항상 제가 땀을 흘릴 때 저와 함께 땀을 흘려주었던 모든 교육병들의 함성과 눈빛은 영원히 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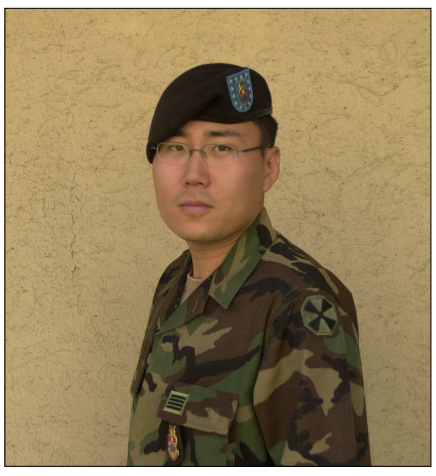
카투사교육대 2구대 교관
상병 이일화

고등학교 때 짝이었던 친구가 교육병으로 온 일이 있었습니다. 교관의 입장으로 교육 중에는 아는 척도 못하다가 마지막 날 조용히 복도로 불러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교육기간동안 주변 교육병들에게 제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친구의 깊은 마음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JSA로 선발되어 멋진 군생활을 하고 있을 친구가 새삼 그리워집니다.



카투사교육대 3구대 교관
상병 반상혁

04-08기 86번 교육병이었던 강화성 교육병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키도 작고 체중도 많이 나가는 그 교육병은 매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러닝 시간에도 항상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고, 마지막 시험 때는 14분의 좋은 기록으로 졸업하였습니다. 용산 8군 본사 보급병 보직을 받아 약 1주일 전에 편지를 받기도 하였는데, 앞으로의 군생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카투사교육대 4구대 교관
병장 김 석

4구대를 졸업한 모든 교육병이 기억에 남는데, 그 중에 한명을 꼽으라면 현재 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종훈 일병입니다. 제가 교관으로 임무수행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시기에 4구대 소선으로 훌륭하게 3주간의 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습니다. 가끔 2%의 부족함으로 질책을 받기도 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은 모든 교육병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카투사라면 누구나 그 시절을 기억할 것이다. 캠프 잭슨에서의 교육병 시절, 논산에서의 훈련 후에 이국적인 건물들로 가득한 조그마한 캠프로 와서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 오히려 논산에서보다 더 엄격하기까지 한 교관들의 모습에 당황해하던 기억. 서서히 카투사라는 군사 외교관으로서의 임무를 깨닫기 시작하던 시절의 기억. 여러 가지 의미에서 카투사교육대는, 그리고 캠프 잭슨은 대한민국의 모든 카투사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기억되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캠프 잭슨에도 복무하고 있는 카투사들이 있으며, 우리에게 그토록 강렬한 인상을 주었던 교관들을 비롯하여 카투사교육대의 기간병들은 교육병들을 위한 편의와 교육을 위해 지금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카투사교육대의 기간병은 교관을 비롯한 행정, 보급, 의무 업무로 나누어지고, 전체적인 일상 업무는 다른 부대와 크게 차이가 없는 편입니다." 카투사교육대의 선임병장직을 맡고 있는 이준기 병장의 말이다. "다만 교육병들을 직접 관리하는 교관이나 교육병들의 신상 처리를 하는 행정병같은 경우는 다른 부대에는 없는 특화된 보직이라고 할 수 있고, 의무병같은 경우는 주로 카투사 교육병들과 PLDC 교육병들의 sick call 업무를 맡아보고 있습니다."

이병장은 "매일 접하는 교관들과는 달리 기간병들은 자주 마주치지도 않고, 가끔 보이는 모습도 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한 강압적인 모습뿐인 것 같다"며 "기간병들이 일을 빨리 처리해서, 교육병들에게 손해가 생기지 않기 위해 그러는 것이니 이해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의 근무지이자 모든 카투사들에게 익숙한 캠프 잭슨에 대해서는 "깨끗하고 아담해서 좋기도 하지만, 캠프가 작다보니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가끔은 답답할 때도 있다. 또한 인원이 적다 보니 개인당 부여된 업무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도 있는 것이 흠"이라고 밝혔다.

카투사교육대에서 교육병들의 행정일을 맡고 있는 김병조 일병은 주로 교육병들이 교육을 받는 데에 불편함이나 불리함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일을 한다. 아이디 카드를 만들고 교육병들의 신상 정보를 한국군지원단본부에 전달하는 일부터 PT, 영어 시험 등의 점수 산출과 교육병들의 자격증을 받아서 파악하는 일까지 이는 교육병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대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김일병은 "자대 배치를 익숙한 곳으로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 불안한 마음이 훨씬 덜해 좋았다. 내가 교육병으로 있으면서 나름대로 느꼈던 불편했던 점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점들을 앞으로 들어오는 후임들이 조금이라도 덜 느낄 수 있도록 잘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공사진

제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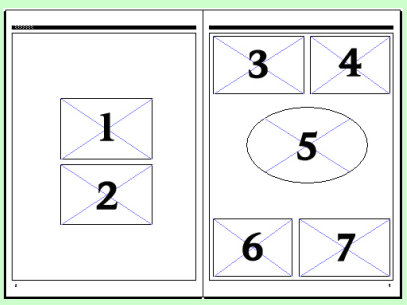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카투사교육대 교관들의 업무는 크게 4개의 주기로 나누어진다. Early, PT, Duty, Late이 그것인데, Early는 아침에 교육병들을 깨우고 인솔하는 일, PT는 교육병들과 함께 PT를 수행하는 일, Duty는 영어 수업이나 교육 등에서 교육병들을 담당하는 일, Late은 저녁 시간에 교육병들에 대한 인원확인과 막사 검사 등을 맡는 일을 각각 의미한다. 이러한 업무들을 각 구대에 할당된 교관들이 나누어서 맡게 되고, 인원이 부족하면 한 사람이 연속해서 업무를 맡기도 한다.

각 구대에는 일반적으로 4명의 교관이 존재한다. 구대를 대표하는 미군 중사가 한명씩 배정되어 있고 구대마다 한국군과 미군이 2명씩 교관을 맡는다는 원칙 하에, 1,3,4구대에는 한국군 간부가 한 명씩 배정되어 있다. 2구대에는 카투사 교관이 2명 배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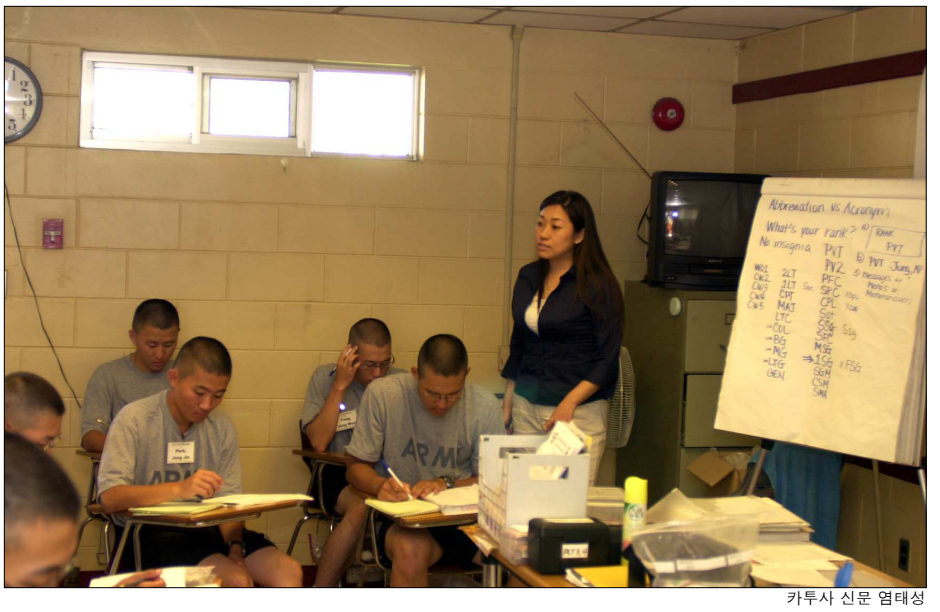
"자대에서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여러 카투사들을 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직접 좋은 역할을 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교관으로 지원하게 되었다"는 카투사교육대 2구대 교관 박범수 상병은 "우리들의 힘으로 카투사 생활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일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교육병들 스스로의 노력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상병과 함께 근무하는 2구대 교관 스틸맨 가이싱거 하사는 카투사 교관들에 대해 "그다지 높지 않은 계급으로 전입오는데도 불구하고 일에 대한 적응속도가 매우 빠르며, 몇 기수를 받고 나면 정말로 능숙한 전문가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카투사교육대 교관은 PT와 사격 등의 기본 능력을 바탕으로 면접을 통해 뽑고 있으며, 이후에 본격적인 교관 교육을 통해 교관으로서 필요한 여러가지 기술 등을 배운다고 한다.

카투사 교육대 1구대의 부소대장인 황광익 중사는 캠프 잭슨에서 근무한 2년 9개월 동안 넘치는 애정과 특유의 유머감각으로 우리들의 교육병 시절의 기억 속에 좋은 모습으로 남아있다. 2001년 12월부터 약 40기수, 6000여명의 카투사 교육병들을 배출한 황중사는 04-10기를 마지막으로 캠프 험프리스로 지원대장직을 맡기 위해 떠나게 되었다. 그는 "그동안 수많은 교육병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르친 것도 많고, 그들에게서 배운 것도 많은데 이렇게 떠나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며 "나와 함께 생활했던 아이들이 자대에 가



1. 카투사교육대의 PT 시험에서 2마일 달리기를 하고 있는 04-10기 교육병들의 모습.
2. 사격을 마치고 복귀하고 있는 교육병들의 모습.
3. 카투사교육대 영어 클래스에서 영어 강사인 미나 정과 함께 수업을 진행중인 교육병들.
4. 교육병들의 아이디 카드를 만들고 있는 김병조 일병.
5. 카투사교육대 3구대 교관 반상혁 상병이 구대원들의 막사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카투사 신문 염태성

카투사 신문 염태성

서 미군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뛰어난 모습을 보일 때, 또 보드나 PLDC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때 내가 미약하게나마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자부심을 느낀다. 군사 외교관으로서의 사명을 잃지 말고 앞으로도 열심히 생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카투사교육대 교육대장 한대수 원사는 "교육대장으로서 약 11개월 정도 근무해오면서 나름대로 생각했던 바를 카투사들에게 당부하고 싶다"고 밝혔다.

"카투사로서 군복무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카투사들도 당당한 대한민국 육군의 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교육병 생활을 마치고 어느 부대에 가서 생활을 하든지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대한민국 군인으로서의 기본자세와 마음가짐을 명심하며 생활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카투사들은 군사 외교관으로서의 본분을 잘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투사교육대 04-10기의 4구대 소선 손상현 이병은 논산의 육군 훈련소와 비교하여 카투사교육대에 와서 느낀 점을 밝혔다.

"이곳에서 가장 먼저 느낀 점은 자부심이었습니다. 단순히 해야만 하는 교육을 논산에서 받았던 것과는 다르게 이곳에서는 목적의식이 분명했습니다. 교관들 역시 단순한 하나의 군인이 아니라 그야말로 군사외교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도와줍니다. 또한 자율성을 크게 느꼈는데, 3인 1실의 방을 쓰고 정리하는 것, 강요적이지 않은 교육, 체력 단련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 등 많은 것을 교육병 스스로 해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논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것이며, 오히려 더 높은 의지로 좋은 성과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담하고 조용했던 캠프의 분위기와 함께 멀리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던 도봉산 덕분에 캠프 잭슨은 우리들의 뇌리에 더 깊게 각인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카투사들에게는 약 3주 동안만 스쳐가는 교육소이겠지만, 교관들을 비롯한 기간병들에게는 자신의 군생활 전체를 보내는 소중한 곳이다. 더군다나 약 한 달을 주기로 같은 업무가 단순 반복되는 독특한 체계 때문에 그들의 생활은 우리가 교육병 시절에 막연하게 부러워하던 모습보다 훨씬 힘들 것이다. 본 기자를 비롯한 그곳을 거쳐 온 많은 카투사들은 우리의 편의를 위해 노력해주었던 그들의 노고를 까맣게 잊고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거의 1년 만에 찾은 캠프 잭슨, 카투사 교육대였지만 여전히 도봉산은 아름다웠고, 여전히 교관들의 목소리는 교육병들의 마음을 울렸다. ■

상병 염태성

6. 카투사교육대 교육대장 한대수 원사가 PLDC 과정에 참가중인 병사들의 막사를 방문하여 카투사의 복장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7. 카투사교육대 04-04기의 졸업식을 축하하기 위해 캠프 잭슨을 방문한 육군 1공수 특전여단 김순조 주임원사의 모습.

제공사진

제공사진

따뜻한 카리스마

이종선 / 랜덤하우스중앙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매력과 경쟁력을 '따뜻한 카리스마'란 키워드로 풀어낸 책. 효과적인 이미지 관리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노하우를 담았다. 저자는 사람들의 특징과 공통적 이미지 요소를 분석해낸다. 또한 능력을 인정받는 직장인, 인기 있는 동료, 닮고 싶은 리더의 일반적인 사례들을 제시, 객관적 이미지의 힘을 비즈니스와 연결시키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음악 사랑하기

www.kmusic.org

국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인터넷 열린 마당 풍류마을. 힙합, 하드락 등 강하고 개성넘치는 음악이 사랑받는 시대에 우리 음악인 국악이라는 말만 들어도 잠이 쏟아진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알고 들으면 참맛을 느낄 수 있는 법. 국악이론, 국악곡 설명, 국악기 소개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이론과 악기소개까지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2천여곡이 넘는 우리의 소리와 여러 음반들을 소개하고 있다.

Winglish.Com 과 함께하는

English Talk N' Talk

제 1 장

카투사 요원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2004년 10월 1호부터 사이버 대학인 Winglish.com 이 제공하는 교육 교재를 연재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휴, 오늘 정말 피곤하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퇴근 후 집에 오면 녹초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오늘의 주제를 영어로는?

Whew, I am burned out. 이라고 하면 자연스럽죠.

주제연구) 여기에 쓰인 burn out 은 '불에 타버린'이란 뜻입니다. 몸이 마치 초가 녹듯 '녹초'가 되었다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 조금 더 연습합니다.

A: Whew! I am burned out.

B: Another tough day, wasn't it?

A: Yep, I need some ice cold beer, I guess.

B: You can say that again.

번역)

A: 휴우, 몸이 완전히 녹초가 됐어.

B: 또 힘든 하루였지, 그렇지?

A: 응, 시원한 맥주나 한잔 해야겠어.

B: 좋은 생각이야. (물론이지.)

＊그 친구 컴퓨터광이잖아.

컴퓨터를 잘하는 친구를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영어로는?

He is a computer freak. 이라고 하면 자연스럽습니다.

주제연구) 여기에 쓰인 freak 은 '괴물'이란 뜻이죠. 그래서 친구들끼리 종종 '저녁석 ~분야에 광이야'라고 할때 이처럼 freak 이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대화를 통해 조금 더 연습합니다.

A: Jim, can you help me with this computer problem?

B: You know I am not good with computers. Why don't you ask Bill?

A: Bill who?

B: I mean Bill Anderson. He's a computer freak.

번역)

A: 짐, 이 컴퓨터 문제 해결 좀 도와줄래?

B: 너도 알다시피 난 컴퓨터는 잘 모르잖아, Bill 한테 물어보는 게 어때?

A: 어떤 Bill?

B: Bill Anderson 말야, 걔 정말 컴퓨터광이잖아.

＊선약이 있어요.

친구 또는 동료가 '저녁식사나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선약이 있다'고 해야 할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영어로는?

I have a prior engagement. 라고 하면 자연스럽죠.

주제연구) 여기서 말하는 engagement 에는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남녀간의 약혼'과 '중요한 약속'이라는 의미로 자주 쓰입니다.

대화를 통해 조금 더 연습합니다.

A: Are you busy tonight? If not, can you help me out?

B: I'd love to but I have a prior engagement at around 7.

A: All right. Let me ask Bill to help me.

B: Sorry!

번역)

A: 오늘 밤 바빠? 그렇지 않으면 나 좀 도와 줄래?

B: 그러고 싶지만 7시경에 선약이 있어.

A:알았어. Bill 한테 도와 달라고 할게.

B: 미안!

＊유제품은 어디 있어요?

슈퍼마켓에 가면 '우유나 치즈' 등 유제품을 파는 곳이 있지요. 그와 관련된 연습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영어로는?

What aisle are dairy products in? 이라고 하면 자연스럽습니다.

주제연구) '슈퍼마켓'의 물건을 쌓아놓는 곳 뿐만 아니라 좁은 통로도 영어로 aisle 이라고 합니다.

대화를 보며 연습합니다.

A: What aisle are dairy products in?

B: They're in aisle four beside the pasta.

A: Thanks. And what about the produce section?

B: That's beside the dairy products.

번역)

A: 유제품은 어느 코너에 있나요?

B: 파스타 옆 4번 코너에 있습니다.

A: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산물은 어디에 있죠?

B: 유제품 옆에 있습니다.

＊내 차 바퀴 교체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오늘 주제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영어로는?

I'd like to have an estimate on having my car's tires replaced. 라고 하면 자연스럽죠.

주제연구)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측정 (하다)' 또는 '견적 (하다)'는 estimate 와 '교체하다'는 의미의 replace 입니다.

대화를 통해 조금 더 연습합니다.

A: Good afternoon, I'd like to have an estimate on having my car's tires replaced.

B: Okay, why don't you come by our shop so I can give you an estimate?

A: All right. What time do you close?

B: We are open 24 hours!

번역)

A: 안녕하세요, 차 바퀴를 교체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B: 그러세요? 저희 shop에 한번 들러 주세요, 제가 견적을 내 드리겠습니다.

A: 알겠습니다. 몇 시까지 영업하세요?

B: 24시간 영업합니다.

＊평균 생활비가 자꾸 올라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물가'가 자꾸 오르죠? 그러다 보니 오늘 주제와 같은 표현이 많이 쓰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영어로는?

The average cost of living is getting higher. 라고 하죠.

주제연구) cost of living 은 말 그대로 '생활비'입니다. 종종 living costs 라고도 하죠.

대화를 통해 조금 더 연습합니다.

A: Jane, why the long face?

B: As you know, the average cost of living is getting higher and my wage hasn't changed.

A: That's true. It's really hard to cope with increasing prices.

B: What shall I do then?

번역)

A: Jane, 왜 그렇게 시무룩하지?

B: 너도 알다시피, 평균 생활비는 자꾸 올라가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잖아.

A: 맞아. 치솟는 물가 속에서 살아가기란 정말 어렵지.

B: 그럼 어떻게 하지?

■ 카투사 기고문

동북공정과 중화주의

– 고구려에 대한 중국의 역사왜곡(下)

도광양회(韜光養晦)라 했던가. 하지만 중국은 이제 급성장한 경제력을 정치 외교적 영향력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패권주의로 전향하고 있는 중국의 이러한 모습은 얼마 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라든지 대만 총통 취임식 불참 권고 등에서도 잘 드러났다. 중국 외교정책의 오랜 모토였던 화평굴기(和平屈起)에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추가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동북공정 또한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신적·이념적인 장치일 뿐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주변 국가들을 모두 결합시켜 하나의 질서를 구축하는게 중국의 국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화이질서'가 현실화 되고 있는 듯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탈미친중(脫美親中)만을 내세우며 막대한 對 북한 영향력을 지닌 중국과의 관계개선만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순진한 생각에 계속 빠져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비록 중국에 비해 약소국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우리 것도 지키지 못한 채 질 수는 절대 없다.

먼저 우리는 동북공정을 통한 중국의 역사 왜곡은 성공할 수 없음을 중국 스스로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중국에 엄중한 항의를 하고 역사 왜곡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강경하고 일관된 노선을 취해야 한다. 더 이상 아무런 법적 구속력 없는 '구두양해'에만 안주하지 말고 투자 우선순위 조정, 대사소환, 대만카드 활용 등 여러 가지 장·단기적 방안을 신중히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고구려사의 소유권이 외교의 목표가 아니라 중국의 팽창적 민족주의 저지가 외교의 목표임을 명확히 하여 그러한 방향으로 담론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학계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연구센터 등을 설립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 학계 차원에서는 북한과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 하겠다. 한반도의 고구려 유적 대부분이 북한 지역에 산재해 있는 까닭에 문화재 발굴 및 보존을 지원해 평양성 등 기타 고구려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추가 등재하는 데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 중국 측의 '억지스럽지만 나름대로 논리적인'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계속 찾아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 97년 국보 126호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중국에서 인쇄된 것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인쇄된 종이가 한국 전통한지이고 필체도 중국식이 아닌 자유분방한 신라식 글자인데다 팔만대장경에도 사용되는 등 우리나라 전역에서 널리 사용된 점을 밝혀 세계 학계에서 무시당하게 만든 사례를 다시 한 번 상기해 볼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고구려가 우리나라 역사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Arnold Toynbee, John Fairbank, Edwin Reischauer 등 세계적인 역사학자들이 고구려를 분명한 한국사의 일부로 보았다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희망을 던져준다. 따라서 우리 측의 연구 성과를 해외에 홍보하는데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하며 영토 및 역사 문제로 중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몽골, 일본,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러시아 등을 적절히 이용하여 역사 왜곡 문제에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일본 교과서의 한국역사 왜곡 예에서도 그랬듯 UNESCO와 유엔인권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기해 국제적 관심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민간차원에서도 만주고토의 회복, 간도 땅 문제, 조선족에 대한 민족의식 고취 발언 등 민감한 주장으로 중국을 자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우리 자신도 군사 외교관으로서의 자부심으로 무장하고 국가관과 역사관을 확고히 재정립해 세계사적 보편성과 한국사적 특수성간의 균형감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 시도는 어불성설이다. 고구려는 수(隋)·당(唐)과 당당히 맞서 싸운 고대의 강대국이며, 고구려사는 고려·조선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다. 유승민 선수가 왕하오 선수의 이면타법을 공략하기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하고 이를 정면 공격으로 맞받아 쳤듯이 우리도 중국의 속셈과 전략에 철저한 대비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한국과 중국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가고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공존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하고 정확한 인식과 이해에 바탕을 둔 상호인식이 요구된다. 좀 더 성숙한 한·중 관계를 위한 한 걸음이 절실한 시점이다. ■

한국군지원단본부 병장 이호준

용어설명)

도광양회 : '제 실력을 드러내지 않고 적절한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로 세계의 초강대국인 미국과 불필요한 경쟁을 삼가고 국력의 소모를 회피하면서 중국의 경제 발전에 전력을 쏟는다는 전략.

화평굴기 : '평화롭게 일어섬'이라는 뜻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중국의 위협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경계하는 시각을 보이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전략.

제공사진

평남 강서군에 위치한 강서대묘의 벽화인 '현무도'.

빈집

감독:김기덕

주연:이승연, 재희, 권혁호

태석은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집을 열고 들어가 얼마간을 살고 나온다. 그렇게 살던 태석은 어느 빈 집에서 멍 투성이의 한 여자를 만난다. 남편의 집착과 소유욕 때문에 피폐해지고 망가진 채로 유령처럼 살아가는 여자 선화. 자신을 데려가 주길 바라는 것 같던 선화의 눈빛을 떨쳐버릴 수가 없던 태석은 남편의 강제적인 탐닉에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선화를 구해 도망치는데...

한 남자

김종국

2.휠릴리 / 이수영
3.긴 하루 / 이승철
4.Windy/ 유진
5.Spark/ 보아
6.문신 / 세븐
7.Brand New/ 신화
8.내 여자라니까 / 이승기
9.기억 상실 / 거미
10.너에게로 또다시 / 서영은
11.너 하나만 / 파리의 연인 OST
12.Liquor shots/ 드렁큰타이거
13.러브홀릭/SKY

New Silver Star 신은성

작년 여름, 가요계를 강타한 신인 여성 댄스가수 신은성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멋진 춤과 외모로 많은 인기를 얻었던 그녀가 8개월 간의 긴 준비작업을 끝내고 새 앨범으로 다시 찾아왔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 세련된 외모와는 달리 개구쟁이 같은 천진난만한 성격에 놀랐고, 생방송을 바로 앞두고도 장시간의 인터뷰에 전혀 싫은 내색을 하지 않던 친절함에 또 한번 놀랐다. 서늘해진 이 계절을 멋진 무대로 뜨겁게 해줄 그녀를 만나보자.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신은성입니다. 이번에 2집 'Bye Bye'라는 곡으로 며칠 전에 첫 방송을 했습니다. 많이 준비해서 나왔으니, 예쁘게 봐 주세요.

-최근 근황

최근엔 2집 준비를 하느라 피곤했습니다. 모두들 명절을 쇠셨겠지만 저는 며칠을 연습만 했거든요. 그래도 힘든만큼 팬들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데뷔하게 된 계기

처음에는 영화로 데뷔를 하려 했는데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하게 되고, 평소 음악에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을 주윗분들께 보여드려 가수로 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시나리오를 검토중이지만 영화나 드라마 출연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성격

저는 겉모습과는 달리 털털한 성격입니다. 잘 잃어버리고,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애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단점이 있다면 술을 전혀 못 마시는데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소주 열 잔, 스무 잔을 마신 것처럼 재미있게 놀 수 있어요.

-여러 연예계 관계자들에게 인정받은 비결이 있다면

제가 특별히 모션을 잘 취하거나 외모가 뛰어나서 그런건 아닌 것 같고요, 현장에서는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들 저로 인해서 즐거워지고 기분 좋아지시라고 재밌게 일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존경하는 가수 및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면

저는 이은미씨를 좋아합니다. 제가 평소에 발라드 및 미디엄 템포의 곡들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특히 이은미씨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대에서 굉장히 열정적이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요즘은 보아씨 노래나 일본 음악들도 좋아합니다.

-2집 소개

1집과 느낌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1집과 같이 팝을 모태로 했지만, 이번 앨범에서는 구성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미디엄 템포, 재즈풍 노래도 있고 발라드, 댄스곡 등을 다 섞어서 앨범을 들으실 때 지루하지 않도록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수록곡중 'Touch' 란 곡과 'Stay' 란 곡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앞으로의 목표

다른 가수들과 마찬가지로 최고가 되겠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할 것이고요, 항상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는 열정적인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카투사하면 생각나는 이미지

카투사분들을 이태원 근처에서 뵌 적이 있는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이국적인 모습에 한국인인지 몰랐었어요. 미군들이랑 같이 생활하시니까 느낌도 닮는 것 같습니다.

-카투사에게 한마디

다들 일교차가 커서 고생이 심하실텐데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나라를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찾아가서 공연할께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

사진: 일병 신희석 글: 이병 최의진